

제12회 대학(원)생 지식재산우수논문공모전

지식재산 국내외 최근 동향

하홍준(선임연구위원, 법학박사)

2017. 6. 30.

목 차

1. 지식재산

2. 글로벌 지식재산 주요 이슈

3. 국내현황

4. 해외동향

1. 지식재산

의의

-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영업비밀, 신지식재산권, 저작권 등을 총칭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을 의미
-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법이 부여한 권리가 바로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크게 구분
- 산업재산권은 출원, 심사, 등록의 절차를 거쳐 보호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 등은 창작성만 인정되면 등록여부와는 무관하게 보호

1. 지식재산

산업재산권

구분	특 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 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정의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 명한 것 (대발명)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 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 게 쓸 수 있도록 한 물건 에 대한 고안 그 자체 (소 발명, 개량발명)	물품(물품의 부분 포함) 의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 · 문자 · 도형이나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과 색채 와의 결합으로서 타인의 것 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	부정경쟁행위를 방 지하며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함
예시	벨이 전자를 응용하 여 처음으로 전화기 를 생각해 낸 것과 같은 발명	분리된 송수화기를 하 나로 하여 편리하게 한 것과 같은 형상이나 구 조 등에 관한 고안	탁상전화기를 반구형 이나 네모꼴로 한 것과 같이 물품의 외관에 대 한 형상 · 모양 · 색채 에 관한 디자인	전화기 제조회사가 자사 제품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이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표장으로서의 상호 · 마크 등	부정경쟁행위와 영 업비밀
존속 기간	설정등록일 후 출원 일로부터 20년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 부터 10년 (구법 적용분은 15년)	설정등록일로부터 15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10 년마다 갱신가능, 반영구적 권리)	무제한

2. 글로벌 지식재산 주요 이슈

■ 영업비밀 보호 강화

- 오늘날 기술은 기업의 가치 창출은 넘어 기업의 흥망을 좌우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작용
 - 기업 간 그리고 국가 간 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증대
 - 기업 및 국가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제도와 영업비밀 보호 제도를 통해 자사 또는 자국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고자 노력
 - 기술의 발달, 산업의 전문화 및 세분화, 기업 간 기술적 우위 확보를 위한 경쟁 심화 등으로 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
 - 각국은 국내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민·형사적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 협력을 통하여 영업비밀 보호 강화 모색

2. 글로벌 지식재산 주요 이슈

■ 영업비밀 보호 강화

- 미국은 2016년 5월 11일 시행된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이하, “DTSA”)’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 법제를 획기적으로 변화
 - DTSA는 영업비밀 침해 시 당사자가 연방 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최초의 법으로, 동법에 따라 영업비밀에 대한 연방 차원의 보호가 형사적 조치뿐만 아니라 민사적 조치로 확대
- 일본은 2016년 1월 1일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영업비밀의 부정사용 행위에 관한 추정 규정을 도입하여 입증책임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영업비밀 침해로 취득한 수익에 대한 몰수 규정 신설하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는 등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 수준을 강화
- 유럽연합(EU)의 경우, 2016년 6월 8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에서 영업비밀의 정의, 불법행위의 범위, 구제수단 등을 규정한 ‘영업비밀 지침(Directive 2016/943, EU Trade Secrets Directive)’이 채택되어 유럽 단일의 강화된 영업비밀 보호 기반 마련

2. 글로벌 지식재산 주요 이슈

■ 브렉시트(Brexit)

- 브렉시트(Brexit)는 2016년 유럽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가 공식화되면서 유럽연합(EU)이 수년간 공들여왔던 단일특허(Unitary Patent)제도와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의 미래 또한 불투명
- 단일특허제도의 도입은 유럽연합(EU)의 통합된 특허체제 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추진된 계획으로 단일특허규칙, 단일특허 번역언어규칙, 통합특허법원협정의 세 가지가 필수 요건
- 통합특허법원협정은 프랑스, 독일, 영국을 필수 비준국으로 하여 총 13개 EU 회원국의 비준이 요구되는데, 브렉시트로 인해 EU 회원국의 지위를 잃게 되는 영국이 필수 비준국으로서 유효한지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단일특허제도는 그 근간부터 흔들리게 됨

2. 글로벌 지식재산 주요 이슈

■ 브렉시트(Brexit)

- 2016년 11월 28일, 영국 정부가 통합특허법원협정에 대한 비준계획을 발표하면서 단일특허제도를 향한 흐름은 다시 활기
- 2017년 2월 10일, 이탈리아가 통합특허법원협정 비준서를 EU 이사회에 기탁함으로써 총 12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하였으며, 필수 비준국인 영국과 독일의 경우 2017년 상반기 내에 비준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
- 통합특허법원협정은 무리없이 발효될 것으로 보이며, 통합특허법원 준비위원회 또한 2017년 12월부터 통합특허법원이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관련 계획을 공식 발표

2. 글로벌 지식재산 주요 이슈

■ 브렉시트(Brexit)

- 준비위원회의 계획에 따르면, 2017년 5월에 통합특허법원 임시적용 단계(Provisional Application Phase)가 개시되고 9월 이후에는 기피(Opt-out) 신청이 가능하게 되며 12월에 통합특허법원협정이 본격 발효되면서 통합특허법원이 운영이 개시
- 많은 전문가들이 단일특허제도의 시행과 통합특허법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앞 다투어 내어놓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는 존재
- 그 근거로 2017년 1월 17일 영국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더 이상 EU의 단일 시장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
-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Brexit 이후)에도 EU 비회원국으로서 단일 특허제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임

2. 글로벌 지식재산 주요 이슈

■ 제4차 산업혁명

- 최근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를 가속화할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급증
 - 한국에서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로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급증
 - 빅데이터를 활용한 딥러닝이 유의미한 기술 발전을 가지고 왔고, 그에 대한 다양한 전망과 견해 제시
- 전 세계 각국에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등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기술의 특허가 폭발적으로 성장
 - 부가가치 창출규모는 11.9조 ~ 35.6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2. 글로벌 지식재산 주요 이슈

■ 제4차 산업혁명

- 제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제46회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로 급속도로 발전하는 ICT 기술이 인류에 가져올 변화에 대하여 논의
 - 다보스포럼에서는 ‘인공지능·로봇·바이오·나노기술·사물인터넷·빅데이터·드론·자율주행자동차·3D 프린팅’ 등 첨단기술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융복합을 통해 기존 산업영역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전망
- 세계경제포럼은 ‘제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으로서, IT 및 전자기술 등 디지털 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공학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를 의미한다고 정의

2. 글로벌 지식재산 주요 이슈

■ 제4차 산업혁명

-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수년 전부터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다각적·다면적인 정책수립 및 지원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
 - 이들은 자국 산업의 강점을 연계한 전략을 세워 새로운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
- 미국, 독일, 일본은 정부정책, 혁신기업 수준, 인프라 면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
- 기본적으로 대응전략 수립에 있어서 각 국가는 기존의 ICT 기술 및 관련 인프라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정책을 설계하고 있으며, 미국과 독일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일본과 중국은 정부 차원의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

2. 글로벌 지식재산 주요 이슈

■ 제4차 산업혁명

- 우리나라도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점
 -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
 - 제조업 혁신 3.0 전략과 지능정보 산업발전 전략을 우선 발표하고 추후에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으로 국가지능정보화 전략수립을 추진을 준비 중
 -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미래 성장동력의 조기 가시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 분야에 2017년 R&D 예산을 추가 투입

2. 글로벌 지식재산 주요 이슈

■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 강화

- 2000년 대 초반까지 중국은 세계 최대의 기술도입국 혹은 모방국으로 인식되었으며 2000년 중국의 특허 출원건수는 미국과 5.7배, 일본과는 8.1배의 격차
- 불과 10여 년만에 중국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으며 세계 지식재산 강국 IP5의 반열에 등극
- 중국 국무원은 2016년 12월에 제정하여 2017년 1월에 발표한 ‘13·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계획(“十三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에서 세계 수준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과 지식재산권 국제영향력 확대를 핵심 과제로 설정
-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적성장과 질적성장의 불균형, 낮은 보호수준 등의 한계가 존재하는 가운데 향후 중국이 어떻게 한계를 돌파하여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해낼지 귀추 주목

2. 글로벌 지식재산 주요 이슈

■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 강화

- 2015년에 중국은 세계 최초로 특허 출원건수 100만 건 이상을 기록했으며, 2016년 특허 출원건수는 전년 대비 21.5% 증가한 133만 9천여 건으로 6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
- 상표 분야에서의 급성장하여 2016년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의 상표 출원건수는 약 369만 건으로 15년 연속 세계 1위
-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2016년에 상표출원 편리화 개혁의 일환으로 전국에 15개의 상표출원수리처를 신설하여 상표 출원인의 출원비용을 절감하고 편의성을 제고
- 베이징 외의 지역에서는 최초로 광저우시에 상표심사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상표출원 접수 및 심사업무를 담당

2. 글로벌 지식재산 주요 이슈

■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 강화

- 중국 정부는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
 - 2016년 중국 국가지식산업권국(SIPO)에 접수된 PCT 국제출원은 약 45,000건으로 전년 대비 47.3% 증가하여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중국의 마드리드 국제 상표출원은 3,014건을 기록하여 처음으로 전체 마드리드 가입국 중에서 5위
 - 중국은 상위 10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인 29.8%의 증가율로 급증하며 성장 가능성을 증명

3. 국내현황

■ 연구원 선정 2016년도 지식재산 10대 이슈

1	제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AI,가상현실,드론 등)
2	특허무효심판·소송 제도 개선 논의
3	중국의 지식재산권 강화
4	특허 빅데이터 활용 중요성 증가
5	브렉시트: 유럽 지재권 통합에의 영향
6	26년 만의 상표법 전면 개정
7	기술과 콘텐츠 융합: AR 기술과 포켓몬고 열풍
8	직무발명보상제도 개선
9	지식재산권 부당한 행사 관련 지침 전면개정
10	전 세계적인 영업비밀 보호 강화 추세

3. 국내 현황

최근 5년간 권리별 출원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특 허	192,560	204,589 (6.2)	210,292 (2.7)	213,694 (1.6)	208,830 (△2.3)
실용신안	12,463	10,968 (△12.0)	9,184 (△16.3)	8,711 (△5.2)	7,767 (△10.8)
디자인	63,152	66,940 (6.0)	64,245 (4.0)	67,594 (5.2)	65,659 (△2.9)
상 표	132,611	147,667 (11.4)	150,226 (1.7)	185,433 (23.4)	181,606 (△2.1)
계	400,786	430,164 (7.3)	433,947 (0.9)	475,432 (9.6)	463,862 (△2.4)

* 출처 : 「지식재산 통계월보」, 특허청, 2016.12., () 전년 대비 증감률

3. 국내현황

주요국 PCT 국제출원 현황

(WIPO 접수기준, 단위 : 건, %)

출원국	연도별 출원건수				
	2011	2012	2013	2014	2015
미 국	48,596	51,643	57,435	61,476	57,121 (△7.1)
일 본	32,150	43,660	43,771	42,380	44,053 (3.9)
중 국	16,406	18,617	21,514	25,548	29,837 (16.8)
독 일	18,568	18,764	17,913	17,983	18,003 (0.1)
한 국	10,447	11,848	12,381	13,117	14,564 (11.0)
프랑스	7,664	7,851	7,905	8,258	8,421 (2.0)
계	129,721	150,172	158,022	168,762	171,999 (1.9)

* 출처 : 「World IP Indicators 2016」, WIPO, 2016.10. () 전년 대비 증감률

3. 국내현황

최근 5년간 권리별 등록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특 허	113,466	127,330 (12.2)	129,786 (1.9)	101,873 (△21.5)	108,876 (6.9)
실용신안	6,353	5,959 (△6.2)	4,955 (△16.8)	3,253 (△34.3)	2,854 (△12.3)
디자인	46,146	47,308 (2.5)	54,021 (14.1)	54,574 (1.0)	55,603 (1.9)
상 표	77,907	100,092 (28.5)	99,791 (△0.3)	114,746 (15.0)	119,255 (3.9)
계	243,872	280,689 (15.1)	288,553 (2.3)	274,446 (△4.9)	286,588 (4.4)

* 출처 : 「지식재산 통계월보」, 특허청, 2016.12., () 전년 대비 증감률

최근 5년간 특허 무효율

(단위 : 건,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특허무효율*	53.4	52.1	49.2	53.2	29.5
	(374/700)	(405/777)	(317/644)	(314/590)	(348/1178)

* 특허 무효율 : 무효인용 심결 건 / 심결건수

** 출처 : 「2015 지식재산통계연보」, 특허청, 2016.6.

3. 국내현황

지식재산권 유형별 무역수지 추이

(억 달러)

	2014	2015	2015				2016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4/4
수지	-45.3	-40.0	-19.7	-5.8	-1.6	-12.9	-7.8	-1.6	-1.3	-8.4
산업재산권	-48.2	-34.4	-20.8	-3.2	-0.7	-9.6	-8.1	-4.2	-2.9	-8.8
특허 및 실용신안권	-33.7	-25.8	-18.7	0.8	-1.4	-6.5	-6.3	-3.0	-2.7	-8.1
디자인권	-5.7	-4.3	-0.8	-1.4	-0.8	-1.2	-0.2	0.3	0.9	-0.8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8.8	-4.3	-1.3	-2.6	1.5	-1.9	-1.7	-1.4	-1.1	0.1
저작권	6.4	6.8	2.1	-0.7	2.0	3.3	1.1	2.7	2.3	1.0
문화예술저작권	-4.1	-2.9	-1.0	-0.3	-0.6	-1.0	-1.6	0.3	-0.3	-1.3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10.5	9.6	3.2	-0.4	2.6	4.3	2.7	2.4	2.6	2.3
기타지식재산권	-3.5	-12.4	-1.0	-1.9	-2.9	-6.6	-0.8	-0.2	-0.7	-0.6

* 출처 : 한국은행, 지식재산권 무역수지('17.2.27.)

4. 해외동향

■ 미국

- 2016년에도 미국은 친(親) 지식재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특허권 남용 및 부실풍허의 방지를 위한 지식재산 제도 개선
- 입법 영역에서는 기존 미국 영업비밀 보호 법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 시키며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 수준을 강화한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S.1890)’(이하, “DTSA”) 시행
- 2016년에는 지식재산 권리자와 잠재적인 침해자 간의 권리관계에 지침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 선고되면서 판례법 발전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최근 몇 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한 ‘특허품 질향상 계획(Enhanced Patent Quality Initiative, 이하, “EPQI”)’을 통해 특허심사 및 심판 제도를 개선하고 USPTO의 IT 시스템 향상 도모

4. 해외동향

일본

- 디지털·네트워크의 발달로 도래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격한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지식재산 정책 목표이며, 지식재산권 심사품질 관리를 위한 지속적 노력
-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2016년 5월 발표한 ‘지적재산 추진계획 2016(知的財産推進計画2016)’에서 4대 전략목표를 제시하여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혁신 추진’을 설정하고 새로운 시대 환경에 적합한 지식재산 시스템 및 지식재산 보호 방안 제시
-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2016년 1월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횡단적 제도 연구회(第四次産業革命に向けた横断的制度研究会)’를 설립하여, 2016년 9월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횡단적 제도 연구회 보고서(第四次産業革命に向けた横断的制度研究会報告書)’ 발표
- 지역·중소기업·농림수산분야 지식재산을 강화하고, 다양한 국가들과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 관련 대외활동 강화

4. 해외동향

■ 중국

- 2014년부터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식재산권 품질 제고 및 보호수준의 향상을 위해 노력
- 2015년 12월, 중국 국무원은 ‘새로운 상황 하에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몇 가지 의견’을 발표하고 지식재산 관리체계의 개혁,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 중점 산업의 지식재산권 해외 진출 및 보호 등 강조
- 동 의견에 근거하여 ‘2016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제정하였고, 동 계획에 따라 2016년에는 특허 집약형 산업 목록 선정 및 통계 보고서 발표, 전자상거래 분야의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강화 등 추진

4. 해외동향

■ 유럽연합(EU)

- 단일특허제도의 도입 및 통합특허법원 개시를 위한 노력 지속
- 2016년 6월 브렉시트가 결정되면서 단일특허제도와 통합특허법원을 향한 EU의 수년간의 노력이 무산될 위기에 봉착하였으나, 통합특허법원협정을 비준하겠다는 영국의 공식 표명 하에 다시 안전궤도에 진입
- EU 상표 개혁법에 따라 새로운 상표 지침 및 규칙이 제·개정되고 2016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유럽 상표디자인청(OHIM)이 그 명칭을 EU 지식재산청(EUIPO)으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변화
- 연계된 연구 시리즈를 통해 여러 산업분야에서 지식재산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집행을 더욱 강화

감사합니다